



17일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제25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학 요트경기대회 연습레이스가 열렸다. 참가한 선수들이 힘차게 바다 위를 질주하고 있다.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는 16개 시도 선수 및 임원 400여명이 18개 종목, 34개 부문에 참가하며 제1차 국가대표 선발전(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도 겸한다. /연합뉴스

봄바람을 잡아라

수창초교 4전 전승
소년체전 광주대표로

수창초가 제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초등부 야구 대표로 출전한다. 수창초(감독 나길남)는 17일 본령리야구장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전 초등부 예선 2차에서 1차 예선 우승팀 서림초를 17-3으로 꺾고 대회 진출권을 획득했다. 4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한 수창초는 2008년 우승 이후 3년만에 전국소년체전 정상 탈환에 나서게 됐다. 수창초는 또 광주지역의 4연패에도 도전한다. 2008년 수창초를 시작으로 2009년 대성초, 2010년 서석초가 전국소년체전 초등부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이번 전국소년체전은 오는 5월 경남 진주 일원에서 열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대진 6선발 낙점 아직은

SK와 시범 경기서 안치용에 투런포 허용
KIA 4대5 역전패...차일목 홈런포 빛바래

KIA 타이거즈가 시범경기 2연패를 기록했다. KIA 타이거즈가 17일 문학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시범 경기에서 4-5로 재역전패를 당했다. 차일목이 팀의 시범경기 첫 홈런포를 쏘아올렸지만 패배로 빛이 바랬다. 선발로 나온 이대진이 2회말 SK 6번타자 안치용에게 투런포를 허용하면서 0-2가 됐다. 3이닝동안 마운드를 지킨 이대진은 2회 안타(1홈런) 2사구 2탈삼진 2실점을 기록했다. 0-3으로 뒤지던 6회 신중길이 팀의 첫 타

점을 기록했다. 2사 2루에서 타석에 선 신중길은 우전 안타를 때려내며 2루 주자 김성훈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7회 마운드를 넘겨받은 SK 투수 고효준의 난조로 KIA가 손쉽게 동점을 만들었다. 1-3으로 뒤지던 7회초 불넷으로 출루한 박기남이 고효준의 잇따른 폭투 세 개에 힘입어 후속타 없이 홈을 밟았다. 이종범에 이어 1번 타자로 타석에 선 대졸 신인 윤정우가 불넷을 얻어낸 뒤 도루에 성공하며 무사 2루. 이현곤의 유격수 앞 땅볼 때 윤정우가 제치있는 주루플레이로 3루까지 진투한 뒤 이범호의 2루타 때 홈에 들어

오며 3-3을 만들었다. 그러나 SK가 7회말 역전에 성공했다. 5-6회 끝까지 이닝을 막았던 투수 홍건희가 첫타자 김성현에게 2루타를 허용한 뒤 김강민에게 적시타를 맞으며 1실점을 하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지난 11일 넥센과의 제주도 연습경기에서 홈런포를 가동시켰던 차일목이 8회초 이승호를 상대로 좌월 솔로홈런포를 쏘아올리며 4-4. 팀의 시범경기 첫 홈런포가 터졌지만 8회말 손영민이 이호준에게 안타를 내준 뒤 최정에게 1타점 2루타를 허용하며 경기는 4-5 재역전패로 끝났다. KIA는 16일 LG와의 경기에서 0-11로 영봉패를 당한 뒤 17일 SK에게 1점차 패배를 기록하면서 시범경기 전적 2승3패를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의 역사 장미란 살아있는 전설 되다

국제연도연맹紙 최신호서 확인

한국이 낳은 걸출한 역사(力士) 장미란(28·고양시청)이 '살아있는 전설'임이 재확인됐다. 17일 작년 역도계 이슈를 총정리한 국제연도연맹(IWF)의 기관지 '월드 웨이트리프팅' 최신호에 따르면 장미란은 세계무대에서 가장 많이 시상대 꼭대기에 오른 현역 선수(Most Pole Position)로 이름을 새겼다. 장미란은 2008년 올림픽과 2005년, 2006년, 2007년, 2009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합계 부문을 제패해 총 5차례 세계 챔피언에 등극했다. 싱궈(중국)이 1988~1997년 7차례 세계를 제패했으나 당시의 여자 역도가 활성화하지 않



은 초기였고, 5차례 제패한 펠리핑, 리아주안, 리쉬화, 탕웨이핑, 쉐샤오밍(이상 중국)도 은퇴한 선수들이다. IWF는 "장미란이 작년에 6번째 정상에 오를 거대한 기회를 잡았지만 아쉽게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올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투수 홍건희 마운드에 오르면... 이견열 타격 코치 "내가 더 떨려"

화순고 시절 사제 인연 타자서 투수 전향 권유

"재만 나오면 내가 더 떨려" 시범경기 들어 KIA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가 있다. 옛날 얼굴로 씩씩하게 공을 뿌리고 있는 마운드 막내 홍건희가 그 주인공.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린 선수다 보니 홍건희가 등판하면 덕아웃에 있는 선배들과 코칭스태프의 눈길은 모두 마운드에 쏠린다. 막내의 투구 하나하나에 탄성이 터지는 덕아웃에서 유난히 긴장하고 있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투수 코치가 아닌 이견열 타격 코치다. 홍건희에게 이견열 코치는 '감독님'이 자 자신의 야구 인생을 바꾼 스승이다. 홍건희는 화순고 1학년 때 외야수에서 투수로 자리를 바꿨다. 당시 화순고

감독이었던 이 코치가 부드러운 투구폼과 배짱 등에서 가능성을 보고 내린 조치였다. 투수 홍건희는 이후 실력과 키가 무럭무럭 자라며 KIA 2차지명어로 프로 선수가 됐다. 이 코치는 "어렸을 때 가르쳤던 제자라 그런지 건희만 등판하면 괜히 내가 더 긴장이 된다"며 "경험은 부족하지만 성실한데다 침착하고, 배짱까지 갖춘 선수라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 코치는 "프로가 되더니 요즘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며 멋도 낸다"고 웃으며 훌쩍 자란 제자에 대한 애절한 마음도 보여줬다. 12일 넥센과의 시범경기 개막전 승부처기 승부에서 3개의 탈삼진으로 승리 투수가 됐던 홍건희는 17일 두 번째 등판에서는 2이닝 동안 3피안타 1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가발 |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가발 | 시술후

초슬립!!

스킬과 맘이 초극대화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화상 두피함몰등 가발의 모든것 해결함
 타사 제품도 신기술로 보완시술 가능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민기든상기 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 검색

최상품을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가격 파괴 50~만원

대산프리모가발

완벽한 방수성 + 리모델링 효과로
 건물의 수명과 가치가 높아집니다.

하이브리드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無중금속 | 無독성 | 내구성 내마모성 | 내오염성

이파엘지 하이브리드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공순서

시공전 | 바탕정리 및 고압수크린징 | 하이브리드 외벽 프라이머 | 하이브리드 외벽마감1차 | 크랙보수 및 취약부위보강 | 하이브리드 외벽마감2차 | 시공후

칼라단열외벽방수공법 - 특허 제0544371호 -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 WWW.IPALG.COM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062) 511-0444 | 대리점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